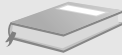


II. 신앙고백서



신앙고백서의 공포 _ 65

서론 _ 67

제1장 하나님 신앙과 성경 _ 68

제2장 창조와 세계 _ 71

제3장 인간과 죄 _ 73

제4장 예수 그리스도와 속량 _ 76

제5장 성령과 삶 _ 78

제6장 교회와 선교 _ 80

제7장 역사와 종말 _ 83

제38회 호헌총회 선언서 _ 86

신앙고백서의 공포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떳떳한 태도다. 아무리 산업사회의 조직체 속에 매여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코 그 조직체를 절대화하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믿음에 대한 설명이나 강조점이 달라지고 믿는 사람의 세속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할지라도 현실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규범과 생활의 긴장관계는 언제나 신앙고백을 요청한다. 목숨 걸고 고백할 만한 신앙내용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 수가 많아도 두려울 것이 없다. 카타콤 속에서도 로마제국과 맞섰던 초대 신도들이야말로 삶과 죽음 전체로 자기 신앙을 고백한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 제정을 시도한 것도 초대 신도들과 같은 역경에서도 그들과 같이 단호하고 용감하게 대결할 수 있게 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훈련하기 위함이다.

이 신앙고백서 제정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 ① 모든 전통적인 신앙고백의 본류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 ② 현대 세계 교회들의 방향에 동조한다는 것, ③ 한국 기독교장로회 전체의 공동고백이라는 것 등이다.

본 신앙고백서 안이 1972년 총회에서 채택되고 선언되기까지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1967년 제52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신조개정연구위원회는 1968년 총회 때에 “신조에 관한 연구 논문”이라는 소책자를 총회에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신앙고백의 본질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연구와 비판이었다. 1969년 총회 때에는 “현대 저명 신조해설”이라는 책자를 총회에 제출하여 최근에 제정된 세계 여러 교회 신조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모범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여 우리의 본보기로 삼았다. 1970년 총회 때에는 우리 교회로서의 신조 구성 방향과 구조와 그 내용 개요가 총회에 제출되어 그것이 시인되었다.

1971년 총회에 더 자세한 내용의 신앙고백서 안이 제출되었으나 한국기독교장로회 공동고백으로서의 성격을 구현시키기 위한 일년간의 광범위한 검토를 거치기도 했다. 그리하여 동 위원회는 본서 내용의 철저한 재검토와 함께 그 성안된 것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각 지방에 출장하여 지역적인 독회를 열고 교회 지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반영시켜 최종안을 작성 총회에 제출한 것이 이 신앙고백 선언서이다.

1972년 제57회 총회에서는 그 제출된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본 교단의 신앙선언으로 공포하게 되었다.

1972년 9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서론

하나님께서서는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를 믿는 자를 불러내어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와 속량의 사업을 계속하십니다.

한국에서 부름 받은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교회를 이루고 겨레의 고난을 나누어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바를 밝히고 선교에 힘써야 하겠다.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같은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의 변화, 새로 개발된 지식, 급변하는 사회 정황, 재래 종교의 도전, 신흥 종교의 발호, 새로운 형태로 군림하는 악의 위협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밝히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길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우리 고유의 문화도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반 그리스도적 세력도 극복되며 교회의 신앙 형태와 직제 및 교파 간의 관계도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요 1:14)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빌 2:6-11).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이기심으로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키며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그를 배우고 그를 닮고 그를 따라야 하겠다.

우리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아우구스부룩 신조, 헬베틱 제1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 바르멘 선언, 한국장로교회의 12신조 등 역사적 교회의 신조들을 이어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제1장 하나님 신앙과 성경

1.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고 그리스도 교회가 계속 믿어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버지시며 자신을 먼저 계시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거룩하신 아버지로 나타나셨고 그 계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들로 나타나셨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성령으로 나타났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세 인격에서 만나며 그 하나의 인격에서 다른 두 인격과 함께 만난다. 각 인격은 서로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으면서도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이 세 인격은 신성과 능력과 목적에서 같고 영광과 위엄에서 같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통일을 이룬 한 하나님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과 같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며(요 14:6),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에게 올 수 없고(요 6:44), 아무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일컬을 수 없으며(고전 12:3, 요일 4:2-3),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오신다(요 14:26, 15:26).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도 그의 창조와 속량, 해방과 치료의 업적에서 만나며 그가 우리들 사이에 임재하심을 믿는다.

2.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교회가 걸어온 삶을 통하여 인식된다. 오늘날까지 자주 일어난 무신론은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님 신앙을 부정하여 왔으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신실성과 그의 권능의 실증에서 살아 계심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용어나 제도나 실천 방식에 매이지 않으시고 그의 창조적 힘으로 새 백성을 일으키시며 새 역사를 지어 가신다.

3. 성경의 본질

이 하나님은 신구약성경에 밝히 증언되어 있다. 구약은 39권으로 한정된 책으로서 교회가 구약 시대의 예배 공동체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완성될 일을 증언한다. 신약은 초대의 에큐메니칼한 교회가 정한 27개의 문서로 된 한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하신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한 사도들의 기록이다. 우리 교회는

이 66권을 정경(正經)이라고 부른다. 이 책들 밖에도 구약과 신약에 외경(外經)이라는 문서가 있지만 그것은 정경에 의하여 판단 받아야 할 책들이다.

신구약성경은 통일을 이룬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각기의 모습으로 증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통일된 것이어서 그 한쪽 없이는 다른 쪽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의 관계는 그리스도 교회가 이스라엘 신앙을 계승하면서도 그것과 구별되는 것과 같다.

성경은 각 시대에 구체적 정황에 살던 예언자와 사도들의 글이며 당시의 신앙공동체에 준 설교와 지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오심과 그의 뜻과 그의 뜻의 실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인간의 본분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4. 성경의 권위와 해석

성경은 자신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적 실재를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진다. 교회는 이 사실을 성경의 영감이라고 불렀다(딤후 3:16-17). 성경의 영감은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며 믿는 사람의 인격을 변혁시키는 사실에 있는 것이며 기록한 자에게서 움직이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읽고 듣는 자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서 실현된다.

성경은 씌여진 장소와 시대와 저자의 여러 조건에 제약되어 있으므로 그 언어의 문법과 사고방식과 그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조건을 정확히 연구함으로써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성경 해석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확립되어야 한다. 해석의 통일성은 성경의 각 부분이 유기체적으로 함께 지향하고 주장하는 그 내용의 흐름에서 찾아진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교회와 그 성원이 그 통일성에 근거하면서 자기의 역사적 상황에서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질

문을 받고 또 질문을 함으로써 그 진리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 해석의 다양성은 그 말씀의 현실성과 인간의 자유와 개성의 고귀성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이 무쾌도한 주관주의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제2장 창조와 세계

1.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창 1:1, 2). 그는 ‘공허’와 ‘혼돈’ 상태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와 자신을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는 우주 만물과 인간과 그의 환경을 포함하는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시며 홀로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이 창조에서 단번에 일을 끝내지 않으시고 전환(轉換)과 갱신으로 완성을 향하여 인도하시며 모든 과정을 그의 뜻에 따라 다스리신다. 이 다스림에서 창조물은 사람에게 맡겨지고 사람의 공헌으로 더 나은 발전과 충실해짐이 기대된다. 창조된 자연의 가장 큰 기능은 생명을 육성 보존하는 것이며 그 과정은 과학으로 확인되는 자연법칙에 따라 설명될 수 있으나 결국 자연의 운명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에 포함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의 지혜와 그에게 응답하는 인격을 주셨다.

모든 창조물과 함께 인간은 창조주를 찬양하고 그를 즐기며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게 하셨다.

2. 섭리와 예정

성경은 창조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친다(마 6:25-

34, 행 17:14-28). 창조된 세계와 역사적 질서 안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있으며 자연이나 인간 사회에 거듭 발생하여 사람을 괴롭히는 악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안의 여러 요소를 서로 견제하든지 혹은 조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선한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실현될 것을 믿는다.

성경은 섭리와 함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말한다(롬 8:29, 9:19-29). 사람에게는 종족, 가정, 성별, 언어, 신체의 조건과 같은 자신의 의지의 결정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전 7:17-24, 요 9:1-3). 이러한 질서는 선악의 가치를 초월하여 사람에게 미리 주어진 것으로서 사람의 삶을 제한한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인격적 결단으로 그런 조건들을 개선하거나 그 의미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야 한다.

구원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예정 신앙은 숙명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은총으로 선택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가장 명확한 예정과 은총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요 15:16, 롬 9:14-18).

3. 자연과 인간

인간은 자연을 초월하는 능력과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나 동시에 자연의 한 부분이며 자연으로부터 생의 소재와 지반을 받으며 갱신의 힘을 얻는다.

오늘날 인간은 무계획한 인구의 팽창, 무절제한 욕심과 낭비, 그리고 과학기술의 오용 등으로 자연을 헤쳐 마침내 자연과 함께 자신의 생의 지반을 파멸시킬 위기에 직면하였다. 우리는 이제 자연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후손도 계속 자연에서 그 생의 소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자연을 배양하고 그 능력을 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의 혜택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에

게 고르게 분배되고 아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4. 자연을 통한 하나님 인식

창조물의 놀라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그의 영광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어렵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을 가리키지만 반면에 부정하며 의심나게도 한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과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롬 1:19-25). 자연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5. 일반적 진리의 주님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차별 없이 대우하시고 사랑하신다(마 5:45). 따라서 창세 이후로 인간이 겪은 체험과 발견도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며 제 종교, 철학, 문학, 예술, 과학을 통하여 얻는 진리들도 하나의 창조의 왕국에 속하여 생의 의미를 찾는 데 유익하며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같은 진리의 주님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골 1:15-17). 일반적 진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사용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인간들에게서 기대된다(롬 8:19-23).

제3장 인간과 죄

1. 인간의 본성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 1:26). 인간은 그 역사적인 삶을 육체적인 출생에서 시작하고 죽음으로써 한정 받는다. 그는 어느 피조물과도 바꿀 수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없

는 개성의 가치를 가진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책임성과 윤리성을 가지며 또 자신의 죽음까지도 넘어서 영원을 사모한다. 그러나 원죄가 인간의 본성에 깊이 침투하여 그것을 부패하게 하고 의와 선과 사랑을 행하기에 무력하게 하였다.

2. 남녀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겁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다(창 1:27-31, 2:24-25). 인간이 이성의 상대자와 사랑의 사귀를 위하여 가지는 성(性)은 생의 의미와 창조의 기적을 발휘하는 귀중한 특성이다. 그러므로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불행을 초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

3. 육체적 생명과 영혼

사람은 육체와 영혼의 통일된 생명체다. 그의 육체적 생명은 생물학적 문화적 조건으로 유지되며 또 그의 영혼은 육체와 관련되어 존재한다. 영혼은 사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의 주체이며 자신의 행동과 죽음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하여 그 생을 받고 전 인류 공동체의 성원이 된다. 그러나 각 개인은 인류 공동체 안에서 시간적 선후와 혈연적 관계를 초월하여 직접 하나님께 속하며 책임적이고 창조적이다(롬 5:12-21). 죽음은 사람을 무에 몰아넣는 강한 현실적 세력이지만(롬 8:21, 고전 15:26)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존속한다. 이 죽음의 본성과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계시되었다(고전 15:12-58).

4. 우주적 악과 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악은 보편적이며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부

패와 타락의 근원이다. 그것은 개인을 조종할 뿐 아니라 사회적 세력을 이루고 전 인류에게 통일된 힘으로 역사한다. 이 세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업적을 파괴하려고 하며 또 각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이 보편적 악에 동참하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거슬러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기주의와 교만에서 온다(창 3:5, 롬 7:5-25). 사람은 이 근원적 죄를 자기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

5. 보편적 윤리 능력

창조 이후로 인류 가운데는 어진 사람과 윤리적 스승이 있어서 죄를 막고 인간성의 개선을 위해 애쓰고 정의, 진리, 자유, 평화 등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사람의 근원적 악을 결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보면 빈약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윤리적 노력을 그치지 않게 하셨으며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은혜의 때가 오기까지 그들을 훈련하셨다.

6. 율법의 의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시행한 율법은 고대 근동지방의 여러 민족의 법과 공통된 것이 많고 십계명도 고대 부족의 윤리적 금령과 비슷하나 제1계명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선포한 것으로 특이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만물의 생존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범법자에게 징벌을 규정하고 사랑으로 불러 모은 공동체에게는 속죄와 성령의 희망을 주는 권위 있는 선언이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훈련 교사로서 장차 올 은총의 그림자이다(갈 3:24).

7.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지막으로서(롬 10:4) 율법을 완성하고 믿음의 길을 여셨으나 그리스도인도 언제나 죄의 그늘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계명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생활이다(요 15:17, 롬 13:8-10).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 계명을 자기 힘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써 하는 것이므로(갈 5:24-25) 교만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다.

제4장 예수 그리스도와 속량

1.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유대 나라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마 1:18-2:12). 그는 병을 고치시며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뽑아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다(행 2:32-36, 롬 1:3-4).

2.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우리와 같은 슬픔과 고난을 경험하셨으며 행동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권위를 나타내셨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요 1:41), 육신이 되신

말씀(요 1:14), 우리의 주(빌 2:11)요 구주(행 5:31)시며, 하나님과 인간을 대표하는 이(히 2:17-18)요, 중보자(딤후 2:5, 히 8:6)시다. 우리는 그에게서 율법과 예언의 완성(마 5:17),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고전 1:14), 신성의 충만(골 2:9)을 본다. 그는 세상에 주어진 복음(롬 2:16), 용서와 은혜(엡 1:7)와 사랑(딤후 3:4), 인간과 사회의 모퉁이 돌(벧전 2:6)이시며 교회의 머리이다(골 2:19).

그가 통일된 인격으로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으신 것은 성령이 확증하시고(요일 4:2) 신앙으로 고백되는(마 16:17-19) 신비(엡 3:4)이다.

3.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낮아지셨다. 그가 이 같이 낮아지신 것은 ‘남을 위한 삶’, ‘섬김’ 또 ‘자기 희생’의 모본이다(막 10:45).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눌린 자, 죄인,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실망한 자의 친구가 되셨다. 그는 모든 악한 세력이나 불의나 거짓 등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죽기까지 항거하셨다(막 11:15-18, 14:61, 15:2-5 병행구).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섬기는 삶 속에서 그의 지극한 사랑과 고귀한 인간성을 본다.

4.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으며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겟세마네의 고난과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통은 참 인간의 고통이었고, 그의 고난에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과 죄의 실상, 또 고독, 죽음, 비참 속에 빠진 인간 생존의 본질이 드러나 있다(사 53:5, 히 4:15, 벧전 2:24).

이 고난의 절정인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의 표현이며 창조를 위협하고 인간을 비참한 운명으로 몰아넣는 우주적 악

과 죄의 세력에 대한 공격이며 또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이며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의 결정적인 행동 이시다(롬 5:1, 3:24, 갈 1:4, 뱀전 3:18).

5.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아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 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이며 역사 안에서 일어난 초자연적 사건이며 부활하신 이를 만난 자에게 인식되고 선교의 소명(눅 24:32, 요 20:21)으로 확증된다.

예수의 부활은 인간의 최후의 원수인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진 것이고 정의와 사랑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 주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힘이다. 그것은 약한 자의 강해짐이요(고후 12:10), 낮아진 자의 높아짐이요, 무법하게 학대를 받는 자의 권리 회복이요, 의로운 패배자의 승리요(고전 15:57), 죽은 자의 삶이다(요 11:25-26).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며 교회의 주(엡 5:29)요, 모든 주의 주님(계 17:14),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히 5:5)으로서 언제나 일하신다.

제5장 성령과 삶

1.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아 역사 안에서 이룩하신 그리스도의 속량 사업을 세상 끝 날까지 계속하신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우리의 한 주 하나님이며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2. 성령의 활동

성령은 그리스도의 속량 사업뿐만 아니라 창조와 보존의 영으로서 인간과 자연과 역사의 과정에서 활동 하신다(요 16:12, 롬 8:9-17).

성령은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새 인간”을 만드신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신다.

성령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죄의식을 날카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성화하고 은혜의 감격을 더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모아 교회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복된 해를 전하는 선교의 일을 주동하시며 인류를 해방하며 숨은 진리를 개발하는 모든 선한 노력에서, 또 역사 안에서의 악에 대한 투쟁과 세계의 평화를 세우려는 운동에서 활동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희망을 창조하며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이 모든 일에서 성령은 통일된 일을 하며 결코 그리스도에게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성령의 역사를 세상의 영으로부터 구별하는 기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요일 4:3) 있으며 그 열매가 그것을 입증한다.

3. 사랑의 삶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우리의 성격과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기쁨으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벧전 2:21) 살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롬 12:1)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성령 안의 삶은 용서 받은 죄인, 잃었다가 찾아진 자의 생활로써 이웃에게 대하여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 그는 약한 자의 친구가 되며 압박자와 악한 권력 구조와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같이 항거하고 투쟁하며, 눌림 받은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기희생도 아끼지 않고 여러 사회적인 세력들을 동원하여 공헌하게 한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이 같은 이를 위한 헌신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부활하신 이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경험한다(고후 4:11-12).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가 된다.

4. 성령의 은사

성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전 12:8-11, 28). 이것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섬길 때 드러나는 각 사람의 특수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며 지혜, 사랑, 병 고침, 학문, 예술, 봉사 등 여러 기능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이런 은사를 교회와 사회와 모든 인류의 선을 위하여 더욱 개발하고 섬기는 일에 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성령의 은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을 때에는 교만과 이기적인 데 떨어져 무효하게 된다. 우리는 여러 은사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랑의 은사를 추구해야 하겠다(고전 12:31). 마침내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등을 거둘 것을 믿는다(갈 5:22-23).

제6장 교회와 선교

1. 교회의 본질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과 사랑과 희망으로 연합된 자의 공동체이며, 그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그의 부활로부

터 세계 종말까지 이 역사 안에 살면서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주체다.

교회는 지역적 역사적 신학적 요인으로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다(엡 4:4-5, 고전 1:13). 교회는 남녀, 연령, 종족, 사회의 계층, 문화적 차이를 넘어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인간적 요소와 제한 속에서도 거룩한 목적을 수행하며 죄인을 속량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계성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를 포함한다(엡 1:22-23, 계 21:22-27).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나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는다(요 17:11).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일하며 세상을 변화시킨다는데서 그 거룩함을 보전한다(약 1:27).

교회는 한 거룩한 공동 교회로서 사도의 전승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이 사도적 전승의 모체와 기준은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이며 교회의 역사적 형태나 전통이 아니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하고 그를 증거하는 것이므로(요 5:39)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2. 교회의 직능과 질서

교회는 세례 받은 신도들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을 집행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친교를 가지며 믿음의 도리와 생활의 윤리를 가르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봉사의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고 사는 공동체다.

교회는 그 직능을 바르고 유효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조직과 신학과 생활규범을 갖는다. 교회는 그들의 신앙과 선교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며 필연적으로 제도화된다. 교회는 선교를 효과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직의 제도를 둔다. 교직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며 신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직책을 맡았다(고전 9:1-18). 그들은 그 방면에 전문적 지식과 훈련과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모든 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며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벧전 2:9)으로서 교회의 제반 의무와 선교의 책임을 지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 그들은 성화 도중에 있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다.

3. 교회의 선교

선교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준 분부이며(마 28:19-20, 행 1:8) 모든 민족을 찾아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례를 베풀며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선교는 환경과 시대를 따라 여러 모양으로 할 수 있다. 선교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신뢰하고 죄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하는 일이며, 다른 편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한다.

선교에서는 가르침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선교는 인간이 변화하고 사회의 구조가 혁신되기 위한 것이며, 또 진리를 선양하며 세계를 바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적인 것이다.

선교의 범위는 세계적이며 사회 전체를 상대로 한다. 오늘날 같은 다원 사회에서 선교는 국가의 기관, 사회의 집단, 생업의 부면 등 각계 각층에 대해 실시되어야 하고 교회의 손이 닿지 않은 모든 곳에 개척의 길을 닦아야 한다. 선교의 때도 제한이 없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딤후 4:2), “살든지 죽든지”(롬 14:7-8) 계속되어야 한다. 선교의 시대는 인간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된다.

선교의 방법은 다양하며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다. 선교에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방인과 같

이 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전 9:19-23). 개인 단위의 선교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 구조를 이탈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체로서의 사회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접촉시키고 변질시키려면 고정된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로운 사회 국면에 대하여 성육신의 정신과 사랑의 실천에 철저히 해야 한다.

선교는 언제나 전 기독교계의 변혁과 사람의 생애의 신앙심과 문화를 혁신할 사명도 다해야 한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현실의 인간이기 때문에 일반 문화와 타종교와의 접촉은 불가피하다. 일반 문화와의 접촉에서는 마음을 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선교에 활용하도록 한다. 타종교와의 만남에서 인간의 근본 곤경을 해결하고 인류의 복지를 이룩하는 일에 협력한다.

4. 교회와 역사

교회는 역사에 대한 낙관과 비관을 초월하여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의 주 하나님의 행동을 본다. 이 현실의 역사가 비록 사회적 불의와 정치적 혼돈 속에 있을 지라도 하나님은 새 질서를 세워 가신다. 그는 과학과 기술, 정치와 경제, 학문과 예술 등을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게 하고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새롭게 말씀하신다.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하며 복음의 선교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지시한다.

제7장 역사와 종말

1.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안에 있다. 그것은 완전한 윤리나 이상적 사회라기보다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 평화, 기쁨이다(고전 4:20, 롬 14:17).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역사의 과정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역사의 진전과 위기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볼 수 있다(막 8:11-12, 병행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서와 같이 그것은 역사 안에서 자라가며 퍼져간다. 믿는 자는 암흑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골 1:13).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나(골 3:3) 그것은 삶의 새로운 힘으로써 역사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계속 새롭게 오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이 역사의 진행에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될(고전 15:28) “새 하늘과 새 땅”(계 21:1-4)에서 완성될 것이다. 믿는 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것을 기다리며 현재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시 나는 생이 영원한 생명으로서 거기까지 이를 것을 믿는다.

2. 역사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으로 사는 사람은 그 희망 때문에 역사 안에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희생의 삶을 가지며 피차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기쁨과 고통을 나눈다. 그는 단순히 한 질서에 안주하거나 적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정의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악과 불의에 대하여는 항거하고 투쟁한다. 그리스도인은 현실 역사 안에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수립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하는 무거운 짐진 사람, 가난하고 고통 속

에 시달리는 사람,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임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의 제도적 개선, 조직의 민주화, 법제도의 개혁, 자유와 정의의 수립, 비인간화를 막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런 일에서 바람직한 성과의 실현이 요원할지라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정의의 증언을 계속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의 부족을 채우시며 끝내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3. 역사의 종말과 완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써 이 역사에 종말이 오고 산 자와 죽은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는다. 그 때의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것으로써 사람의 삶 전체가 “씩을 것으로부터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고전 15:51-54).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희망을 통하여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부분적으로나마 보면서 산다. 우리의 평화는 투쟁 속에 있으며 우리의 생명은 죽음의 그늘에 있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눈물과 고통과 함께 있으며 우리의 희망은 반 그리스도적 세력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모두 회복되고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을 믿는다.

제38회 호헌총회 선언서

굳게 닫힌 쇠국의 문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와 창건의 기쁨을 이 나라에 가져온 지 우금 70년, 그 동안에 선교사 제씨와 우리 선배들의 충성된 활동으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오늘의 성대한 교세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대외국 모든 선배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해방 후 우리 장로 교계는 극단의 전투적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당파와 그 동경자가 발호하여 1951년 이래 총회의 총대석의 다수를 점령함과 동시에 편협한 독선주의로 성도의 협력과 친교를 거부하고 오직 자기 독단에 의한 심판과 배타를 일삼아 마침내 거룩한 모임은 위증과 저주와 분쟁의 무대로 화하였다. 그리하여 헌법도 신앙 양심도 유린되고 오직 다수당의 기정 방침만이 그 횡포를 극하게 되었다.

이 당파는 1929년 벌써 미국 장로교회에서 배제당한 한 적은 집단으로서 전 미국과 캐나다를 통하여 겨우 30만도 못 되는 회원을 유지하고 있는 제외된 소종파임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한국 장로교회의 혼란 상태를 이용하여 그 세력을 부식한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 장로교회의 복음적이요 세계적인 전통을 이 적은 파당인 타종파의 전단에 맡길 수 없었으며 복음의 자유를 그들의 율법주의에 희생시키거나 신앙 양심의 자유를 그들의 불법한 교권에

굴종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총회 당석에서 항의함과 동시에 1952년 9월 17일 전국적인 호헌대회를 구성하여 그 결의로 총회에 그 불법 시정을 요청하였으며 경기, 목포, 충북, 충남 등 제 노회에서는 예를 갖추어 금번 제38회 총회에 그 불법 시정을 항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총회는 추후도 반성할 의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더욱 강포하여 총회에 대하여 양심적인 비판을 가하는 회원들은 개인 혹은 노회로 총회에서 제거하였으며 계속 제거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총회 안에 머물러 그 불의와 불법을 시정하려던 우리의 의도는 이제 그 가능성을 상실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 최종적인 단계에 있어서 현 총회의 성격을 다시 한 번 규명하려 한다.

1. 총회는 3년 내 그 헌법과 통용 규칙을 유린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존립의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2. 총회는 개혁교 본래의 대헌장인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억압 유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적인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다.
3. 총회는 한 당파의 편협한 고집에 의하여 교회로서의 충성된 의사반영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의적인 존재 근거를 상실하였다.
4. 총회는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생겨진 각 노회와 지교회의 혼란과 이탈을 목도하면서도 이를 수습할 아무 성의도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그 행정 능력까지도 이미 상실한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충성심으로 단연 꺾기하여 이 편당주의자를 제거한 정당한 장로교 총회를 계승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서게 되었다.

1953년 6월 10일 전국 성도들의 열렬한 지원 아래 정당한 총회는 구성되었다. 이제부터 우리 장로교회는 신학적 사상적으로 전세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자유로운 발전 성장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의존주의적인 민족적 근성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인격 위신도 발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가해진 불법과 악의를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할 최후 단계에 도달한 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것뿐이다.

우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귀취를 표명하지 않은 노회들과 개 교인들을 겸비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이해와 사랑으로 임한다면 금후에도 합동의 문이 우리 편에서 닫혀질 염려는 조금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소신에 용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과오가 있다면 언제나 그 시정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신과 지도 이념을 중외에 천명한다.

1.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자유를 확보한다.
2. 우리는 전세계 장로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교리를 수립함과 동시에 신앙 양심의 자유를 확보한다.
3. 우리는 노예적인 의존사상을 배격하고 자립 자조의 정신을 함양한다.
4. 그러나 우리는 편협한 고립주의를 경계하고 전세계 성도들과 협력 병진하려는 세계교회 정신에 철저하려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비상한 난국에 처하여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소신대로 전적인 그리스도를 인간 생활의 전 부문에 증거하기 위하여 총 진군할 것이다.

만천하 신앙 동지여, 함께 전진하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1953년 6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註 : 제38회 호헌총회 선언서는 제62회 총회(1977년)에서 헌법에 삽입할 것을 채택하고 노회에 수의한 결과 제63회 총회에서 가결되었음을 보고 받고 헌법에 삽입되었음.)